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5면)

채승우 송파구의원 남인순 국회의원장과 송파 복지현장 방문

송파구의회 채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거여1동·가락2동·문정1동)은 8월 6일(목)부터 7일(금)까지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병)과 함께 송파구 주요 사회복지 현장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사회복지 종사자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보유한 채승우 의원은 평소 노인·장애인복지와 지역사회 돌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관련 현안과 정책을 꾸준히 살펴왔으며, 이번 방문에서도 복지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정진철 서울시의원과 정동배·위정희 송파구의원도 참여했으며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복지·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지역사회 돌봄, 취약계층 지원 및 현장 근무환경 등 다양한 현안을 살폈다.

8월 6일(목)에는 가락2동 가락쌍용1차 경로당과 송파행복드림장애인자립



생활지원센터를 차례로 방문했다.

먼저 가락쌍용1차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경로당 이용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및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경로당 시설과 이용환경을 살펴보는 한편, 어르신들의 교류와 안부 확인을 돕는 생활권 내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확인했다.

이어 송파행복드림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

활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현황을 살펴봤다.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의 역할을 확인하고 이동·생활환경과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8월 7일(금)에는 마천종합사회복지관, 문정노인종합복지관,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을 차례로 방문했다.